

##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조 영 주<sup>†</sup>                      최 해 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본 연구는 이성친구가 있는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첫째,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간에 패턴의 유사성 및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 구체적으로 이성애착과 친구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의 세 가지 애착 유형에 따라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각각에서 의존, 불안 및 친밀의 세 차원을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이성애착과 친구애착의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존 차원과 친밀 차원은 이성애착이 친구애착보다 더 높았고, 불안차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회피형 남자 대학생의 친밀 차원은 친구애착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고, 이성애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양가형의 여자 대학생의 친밀 차원은 친구애착에서는 다른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성애착에서는 안정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의 영향을 배제한(통제한) 후에도 이성친밀과 친구의존을 설명하였고,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및 갈등적 독립도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을 통제 후 아버지와의 애착은 여학생의 성인애착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중에서는 단지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만이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설명하였다.

주요어 : 부모와의 애착, 심리적 독립, 성인애착

---

<sup>†</sup> 교신저자 : 조 영 주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E-mail : ycho74@dreamwiz.com

애착 이론에 따르면, 유아-엄마의 초기 애착의 결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내적 표상은 전 생애를 걸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owlby, 1977; 1988). 중기 청소년기 이후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친밀한 친구애착(friend attachment)으로 전환되어 평생 지속되기도 하고,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이성애착(romantic attachment)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 애착과 관련된 경험의 연속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며, 특히 친구관계나 이성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수정되고 변화를 겪기도 한다(Hazan & Shaver, 1987).

성인 애착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Ainsworth, 1989; Hazan & Shaver, 1987)는 초기 애착과 이성애착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친구애착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적었다. 또한 성인 애착과 초기 애착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유아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애착대상으로서의 엄마와 유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Bowlby(1982)는 유아가 여러 명의 애착 대상을 가지며, 아버지도 이차적인 애착 대상으로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아버지의 애착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적다.

청소년기에 애착 대상의 전환은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와 부합하여 일어나는데(Steinberg, 1990), 이 시기에는 특히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된다(Blos, 1978). Hoffman(1984)이 심리적 독립 척도를 제작한 이후, 부모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이 진로 발달이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 애착의 관련성을 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1)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친구애착의 패턴을 이성애착과 비교해 보고, 친구애착과 이성애착 차원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 아버지와의 애착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3) 또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부모와의 애착

애착 이론은 인간이 특정한 타인과 지속적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경향을 개념화한 것이다(Bowlby, 1977). 애착은 유아가 애착 대상과 근접성을 유지하고,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분리에 저항하며, 유아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애착 대상을 사용하고 편안함과 지지를 얻기 위해 애착 대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애착의 질은 안정감의 원천이 되는 애착 대상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Ainsworth, 1978).

Ainsworth(1978)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고 다시 만났을 때 보이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안정, 회피, 불안-양가의 세 가지 유형의 애착을 제안하였다. 안정적으로 애착한 유아는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불안을 보였지만 재회했을 때 쉽게 편안함을 느꼈다. 회피적 유아는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으며 다시 돌아왔을 때 가까이 가거나 상호 작용하는 것을 피하였다. 그리고, 불안-양가적 유아는 엄마와 분리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고, 재회했을 때에도 쉽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화를 내었다.

애착 유형에 따라 애착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in,

1990). 안정된 유아는 안정적인 애착 대상과 관계를 맺지만, 회피적인 유아는 애착 행동을 줄이고, 불안-양가적 유아는 더 많은 애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회피적 유아는 부모와의 힘든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좌절을 조절하기 위해서 친밀함을 피하고 혼자서 세상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었다(Isabella & Belsky, 1991). 그리고, 불안-양가적 아동은 부모로부터 편안한 거리를 찾지 못한 채, 애착하지도 못하고 회피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ssidy & Berlin, 1994).

이와 같이 아동은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의 돌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 즉 내적 작동모델의 원천이 되며(Bowlby, 1973), 이후에 아동이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맺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Bowlby, 1979).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 줄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타인과 건강한 초기 애착을 경험한 개인은 다른 사람을 지지적이고 우호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애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엄마-유아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어머니가 유아의 주요 양육자로서 일차적인 애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는 여러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고(Bowlby, 1982), 대개의 경우 애착 위계 내에서 아버지는 이차적인 애착 대상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애착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몇몇 연구에서는 아버지도 충분히 돌보는 기능을 하고(Belsky, Gilstrap, & Robin, 1984), 아버지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아동은 아버지를 애착 대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Cox, Owen, Hendersin, & Margand, 1992)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아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엄마로부터 편안함을 찾고, 엄마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나 다른 애착 대상으로부터 편안함이나 안정을 추구하였다(Ainsworth, 1967; Rutter, 1981). 이러한 결과는 애착대상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이차적이기는 하지만, 유아-아버지의 애착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 성인애착

일반적으로 성인은 몇몇 중요한 친구와의 관계나 이성 관계에서 애착 경험을 하게 된다(Hazan & Shaver, 1987).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초기 애착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도 하지만, 전 생애를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Ainsworth, 1982), 아동의 대인관계 스타일 뿐 아니라 성인의 대인 성격으로도 연결된다(Bowlby, 1988). 애착의 연속성은 장기 종단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유아기부터 저학년까지 애착의 연속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아동기 애착을 넘어서서 청소년과 성인의 이성 관계(romantic relationship)에 관심을 가지고, Ainsworth 등(1978)의 유아의 세 가지 애착 유형을 성인의 이성관계에 적용하여 단일 문항의 자기보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성친구나 단짝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안정형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고 의지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며, 회피형은 버림받거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불안양가형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

워지는 것을 꺼리고 이성친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융합되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다. 그들의 연구(Hazan & Shaver, 1987) 결과, 안정되게 애착한 성인은 이성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에 개방적이고 흥미를 가지고 안정적이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신념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Freeney와 Noller(1990)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보다 더 성공적인 이성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관계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이성 관계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평균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 애착 유형은 이성 간의 신뢰, 관계에 대한 만족,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이 있었다. Simpson(1990)의 연구에서는 특히 불안양가형이나 회피형은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덜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 근거하여, 성인 애착을 의존, 불안, 친밀의 세 차원으로 보았다. 의존은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불안은 다른 사람에게서 버림받거나 혹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친밀 차원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여자의 경우 버림받거나 사랑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자의 경우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편안함이 이성 관계의 질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Weiss, 1982). 부모가 아닌 대상과 정서적 유대를 가진다는 점에서 친구애착(friend attachment)은 이성애착과 유사하지만, 친구애착이 발달과정 상에서 이성애착에 앞서 일어나며 성적 매력의 특성(Tennov, 1979)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기 청소년기에는 성인과 같은 친밀감이나 지지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며, 정서적 유대가 없는 아동의 또래관계와는 다른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Hartup, 1992). 친구 관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친구는 애착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며(Buhrmester, 1992; Weiss, 1982), 일생동안 지속되는 친밀감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Ainsworth, 1989).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와 부합하여(Steinberg, 1990), 친구가 중요한 애착 대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Hazan과 Zeifman(1994)은 청소년기에 애착 대상이 부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환됨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6-17세의 청소년이 부모보다는 친구와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8-14세에는 부모보다 친구에게서 편안함과 지지를 구하였다.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유아가 부모와의 분리에 저항하는 것처럼 친구와의 분리에 저항하였으며, 친구를 외부세상을 탐색하는데 안정 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애착의 전환은 이성애착의 발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친구애착과 이성애착의 발달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를 맺고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Josselson, 1988)을 말한다. Mahler(1975)는 생의 초기에 갖는 분리 경험을 '심리적 탄생(psychological birth)'이라고 명명하면서, 일련의 발달 단계를 주장하였다. 그는 만 3세의 아동은 엄마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에 대한 표상과 타인에 대한 표상을 구분하면서 자기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차적 개별화를 통한 물리적 독립에 더하여, Blos(1979)는 성격 조직의 취약성이 극에 달하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차적 분리과정(second process of separation)을 강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심리적 독립을 경험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서적인 독립을 포함하며, 이와 함께 부모와의 현재 관계도 변화하게 된다.

이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Hoffman(1984)은 심리적 독립을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그리고 갈등적 독립의 다차원적 구인으로 보고 심리적 독립척도(PSI)를 개발하였다.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은 유아기의 분리개별화 과제(Mahler, 1975), 즉 엄마와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보는 이차적 개별화가 청소년기에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정서적 독립(Blos, 1979)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승인, 친밀함, 융합, 그리고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갈등적 독립은 부모

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책감, 불안, 불신, 책임감, 금지, 분노, 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에 친밀한 부모-청소년 애착은 외부 세계를 탐색하고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안정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성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Bowlby, 1988; Kenny, 1987)고 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한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더 잘 독립하며, 새로운 상황에도 더 잘 적응하게 된다(Josselson, 1988)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 발달이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은진, 2000; O'Brien et al., 2000). 그러나, 심리적 독립과 성인 애착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Hoffman(1984)은 심리적 독립은 성공적인 개인의 적응, 특히 이성관계에서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이성 관계에서의 문제를 덜 일으켰고,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이성 관계에서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offman(1984)은 부모와의 갈등이 되는 감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신, 개인적인 부적절감,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되고, 자유롭게 사랑 관계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 연구문제

첫째,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친구애착과 이성 애착 차원의 패턴과 정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아버지와의 애착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2개 대학과 충청도에 소재한 1개 대학으로부터 425명의 자료를 얻었다. 이 중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심리적 독립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이성친구를 사귀 경험에 없는 대학생이 174명이었고, 이성친구를 사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271명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는 이성친구를 사귀 경험이 있는 대학생만 포함되었다. 남자 대학생이 124명(45.8%), 여자 대학생이 147명(54.2%)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0명(36.9%), 2학년이 93명(34.3%), 3, 4학년이 각각 27명(10.0%), 51명(18.8%)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학년의 분포는 비슷하였다. 나이는 남자 대학생이 평균 21.48세(SD=2.72)였고, 여자 대학생은 21.17세(SD=1.89)였다.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학생은 129명(47.6%)이었으며, 현재 사귀고 있지는 않지만, 사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2명(52.4%)이었다. 이성친구를 사귀 평균 기간은 남학생이 7.52개월(SD=8.47)이었고, 여학생이 6.99개월(SD=8.55)이었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개정판 전체 75문항 중, 정정숙(1994)이 변안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IPPA는 상호 신뢰의 정도, 의사소통의 질, 분노와 소원의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차원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 반응의 안정성을, 의사소통 차원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며, 소원 차원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측정한다. 신뢰감과 의사소통 문항점수를 역산하여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의 점수를 뺀 것이 개인의 애착 점수이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rmsden과 Greenberg가 보고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7, .89였고, 재검사 신뢰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각각 .72, .81이었다.

#### 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은 Hoffman(1984)이 제작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척도(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PSI는 네 개의 하위 척도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독립(EI)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과도한 친밀감과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말하며, 갈등적 독립(CI)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과도한 죄의식, 불신, 분노, 화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은 청소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성으로 복잡한 정서적 독립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다. 문항은 정은희

(1992)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역산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Hoffman이 보고한 PSI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각각 .88, .92였으며,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은 각각 .89,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76, .87, .77, .91이었다.

### 3)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 분류와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 애착을 아동의 세 가지 애착 유형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당신의 느낌을 가장 잘 기술한 문장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지시문을 주고, 안정, 회피, 불안-양가에 해당되는 진술문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는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척도를 기초로 한 것으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에게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한다. 이 척도는 의존, 친밀, 불안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지는데, 의존 차원은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지, 불안 차원은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불편하며, 버림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친밀 차원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애착과 친구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인 애착 척도를 수정하였다. 이성애착을 측정할 때는 이성친구에 대한 느낌을 표시하고, 친구애착은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한 느낌을 표시하라는 지시문을 주고, 각 문항은 각각의 지시문과 일치되게 바꾸었다. Collins와 Read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의존, 불안, 그리고 친밀이 각각 .75, .72, 그리고 .75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이성애착에서는 의존, 불안, 친밀이 각각 .75, .69, 그리고 .79였고, 친구애착에서는 .76, .64, 그리고 .76이었다.

### 3. 자료분석

먼저, 친구애착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연구문제1),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애착 유형에 따라 친구애착의 세 차원에 차이가 있는지 또 그 패턴이 이성애착과 유사한지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간에 애착 차원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애착 유형에 관한 몇몇 연구(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에서 성차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더하여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2)과 부모 애착에 더하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3)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1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통제한 단계2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추가적으로 성인 애착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3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통제 한 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 결과 및 논의

### 1. 애착 유형에 따른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 1) 애착 유형에 따른 사례수와 비율

애착 유형에 따라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 및 현재 이성친구 유무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443명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에 따른 비율을 보면, 안정형은 53.7%였고 회피형과 불안-양가형은 각각 36.3%와 9.9%였다. 세 유형의 비율은 반 이상이 안정형이었고, 불안-양가형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1997), Collins와 Read(1990) 그리고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와 유사하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Campos 등(198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것은 애착 유형이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연속되는 특징이 있음(Hazan & Shaver, 1987)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 유형에 따라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 유무의 빈도 차이는 유의했고( $\chi^2=7.996, p<.001$ ), 안정형이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애착 유형에 따라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는지 여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자료가 주요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안정형이 58.7%, 회피형이 33.6%, 그리고 불안-양가형이 7.7%로 나타났다. 전체집단과 비교해 볼 때, 안정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고, 회피형과 불안-양가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와의 비교에서 본 연구의 표본이 안정적인 애착으로 편포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2) 남자 대학생의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남자 대학생의 애착 유형에 따른 이성애착 및 친구애착의 차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성애착의 의존(이하 이성의존)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안정형이 가장 높고, 불안양가형, 회피형 순이었으나 세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_{2,121}=.712, p>.05$ ). 즉, 남자 대학생은 애착 유형에 따라 이성친구에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성애착의 불안(이하 이성불안)은 안정형이 가장

표 1. 애착 유형에 따른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의 차이

애착유형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					
	전체		있다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안정형	238	53.7	159	58.7	79	45.9
회피형	161	36.3	91	33.6	70	40.7
불안-양가형	44	9.9	21	7.7	23	13.4

$$\chi^2=7.996^{***}$$

\*\*\* $p<.001$



표 2. 애착 유형에 따른 이성애착 및 친구애착의 차이 (남자 대학생)

	전체 (N=124)	안정형 (N=70)	회피형 (N=45)	불안-양가형 (N=9)	F
<b>이성애착</b>					
의존	3.59 (.64)	3.65 (.61)	3.51 (.68)	3.61 (.65)	.712
불안	2.51 (.72)	2.43 (.68) <sub>a</sub>	2.54 (.71) <sub>a</sub>	3.00 (.89) <sub>b</sub>	2.615
친밀	3.92 (.71)	4.06 (.64)	3.68 (.78)	4.02 (.65)	4.109*
<b>친구애착</b>					
의존	3.31 (.66)	3.57 (.54) <sub>b</sub>	2.93 (.65) <sub>a</sub>	3.11 (.52) <sub>a,b</sub>	16.930***
불안	2.43 (.62)	2.28 (.51) <sub>a</sub>	2.57 (.64) <sub>a,b</sub>	2.91 (.92) <sub>b</sub>	6.197**
친밀	3.65 (.74)	3.95 (.65) <sub>b</sub>	3.15 (.60) <sub>a</sub>	3.82 (.79) <sub>b</sub>	21.480***

다른 알파벳 첨자는 평균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낮고, 회피형, 불안양가형 순이었으나, 쌍별 비교 결과 불안양가형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이성애착의 친밀(이하 이성친밀)은 안정형이 가장 높고, 불안양가형, 회피형 순이었으며, 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_{2,121}=4.109, p < .05$ ). 남자대학생의 이성애착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불안양가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여자친구로부터 비난받거나 사랑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이었다.

남자 대학생의 친구 애착은 애착 유형에 따라서 의존, 불안, 친밀의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애착의 의존(이하 친구의존)은 회피형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F_{2,121}=16.930, p < .001$ ), 친구애착 친밀(이하 친구친밀)도 회피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F_{2,121}=21.480, p < .001$ ). 그러나, 친구애착의 불안(이하 친구불안)은 불안양가형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_{2,121}=6.197, p < .01$ ). 애착 유형에 따른 친구 애착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이성 애착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 패턴은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애착 유형이 이성관계 뿐 아니라, 친구 관계와 같은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성관계는 특히 초기 부모-자녀의 관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므로(Ainsworth, 1989), 각 애착 차원에서의 정도가 친구애착보다 더 강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성애착과 친구애착의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대학생 전체를 보면, 이성의존이 친구의존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t_{123}=4.288, p < .001$ ), 이성친밀도 친구친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t_{123}=3.892, p < .001$ ), 불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_{123}=1.299, p > .05$ ). 즉, 친구보다는 이성친구에게 더 기댈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지만, 사랑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애착 대상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성애착 대 친구애착의 성인 애착 대응표본 t-검증(남자 대학생)

	전체 (N=124)	안정형 (N=70)	회피형 (N=45)	불안-양가형 (N=9)
이성 의존 - 친구 의존	.27 (.64)	.07 (.60)	.57 (.77)	.38 (.79)
t	4.288***	1.070	4.945***	1.336
이성 불안 - 친구 불안	-.03 (.68)	.13 (.59)	-.02 (.85)	.09 (.32)
t	1.299	2.077*	-.187	.857
이성 친밀 - 친구 친밀	.29 (.71)	.11 (.63)	.53 (.93)	.20 (.40)
t	3.892***	1.431	3.806***	1.500

제시된 값은 차이 평균(표준편차)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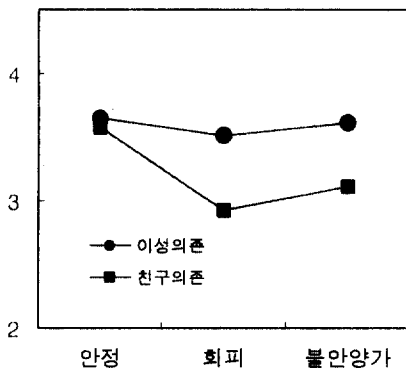


그림 1.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의존 및 친구의존 (남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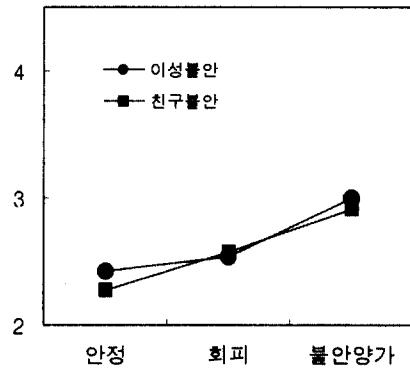


그림 2.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불안 및 친구불안 (남자 대학생)

애착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성애착과 친구 애착의 차이는 회피형 남자 대학생의 경우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 회피형은 친구의존보다 이성의존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 $t_{44}=4.945$ ,  $p < .001$ )(그림 1 참고), 이성친밀이 친구친밀보다 더 높았다( $t_{44}=3.806$ ,  $p < .001$ )(그림 3 참고). 즉, 회피형 남자 대학생은 동성친구보다는 여자친구에게 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친밀함을 느꼈다. 불안차원에서는 안정형의 이성불안과 친구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t_{44}=2.077$ ,  $p < .05$ ), 이러한 결과는 버림받거나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동성인 친구에게서 아주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2 참고).

### 3) 여자 대학생의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여자 대학생의 애착 유형에 따른 이성애착 및 친구애착의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성애착의 의존, 불안, 그리고 친밀은 애착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성의존은

표 4. 애착 유형에 따른 이성애착 및 친구애착의 차이(여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전체 (N=147)	안정형 (N=89)	회피형 (N=46)	불안-양가형 (N=12)	F
<b>이성애착</b>					
의존	3.56 (.60)	3.68(.57)	3.33(.56)	3.58(.74)	5.583**
불안	2.41 (.62)	2.31(.55) <sub>a</sub>	2.43(.61) <sub>a</sub>	3.07(.72) <sub>b</sub>	8.932***
친밀	3.78 (.70)	3.91(.63) <sub>b</sub>	3.44(.71) <sub>a</sub>	4.15(.65) <sub>b</sub>	9.798***
<b>친구애착</b>					
의존	3.30 (.51)	3.47(.44) <sub>b</sub>	3.05(.50) <sub>a</sub>	3.00(.53) <sub>a</sub>	14.475***
불안	2.41 (.53)	2.32(.52) <sub>a</sub>	2.47(.51) <sub>a,b</sub>	2.82(.46) <sub>b</sub>	5.427***
친밀	3.71 (.70)	3.89(.68) <sub>b</sub>	3.39(.62) <sub>a</sub>	3.58(.66) <sub>a,b</sub>	8.981***

다른 알파벳 첨자는 평균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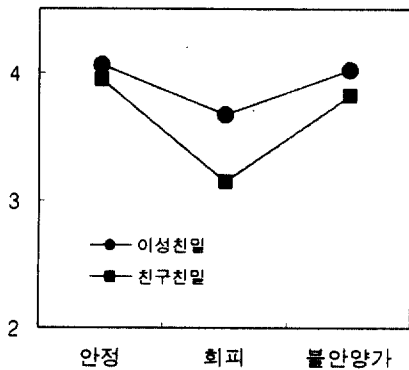


그림 3.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친밀 및 친구친밀 (남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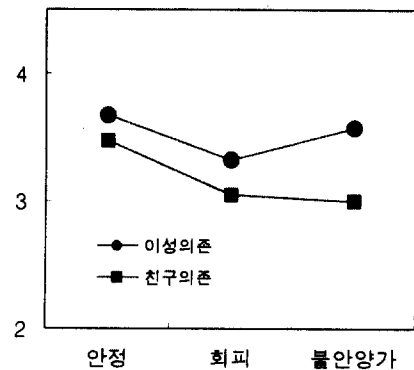


그림 4.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의존 및 친구의존 (여자 대학생)

쌍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순이었다 ( $F_{2,144}=5.583, p<.01$ ). 이성불안은 불안양가형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F_{2,144}=8.932, p<.001$ ), 이성친밀은 회피형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F_{2,144}=9.798, p<.001$ ). 이성친밀에서 불안양가형 여자 대학생의 점수는 안정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이성친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융합되기를 열망하는 불안양가형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대학생의 친구애착을 살펴보면, 친구의존은 안정형이 가장 높았고( $F_{2,144}=14.475, p<.001$ ), 친구불안은 불안양가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았으며( $F_{2,144}=5.427, p<.001$ ), 친구친밀은 회피형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F_{2,144}=8.981,$

표 5. 이성애착 대 친구애착의 성인 애착 대응표본 t-검증(여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전체 (N=147)	안정형 (N=89)	회피형 (N=46)	불안-양가형 (N=12)
이성 의존 - 친구 의존	.27 (.56)	.22 (.57)	.28 (.52)	.58 (.63)
t	5.746***	3.620***	3.632**	3.224**
이성 불안 - 친구 불안	.00 (.66)	-.01 (.64)	-.03 (.62)	.25 (.91)
t	.042	-.166	-.395	.956
이성 친밀 - 친구 친밀	.07 (.73)	.02 (.71)	.05 (.73)	.57 (.75)
t	1.242	.270	.485	2.609*

제시된 값은 차이 평균(표준편차)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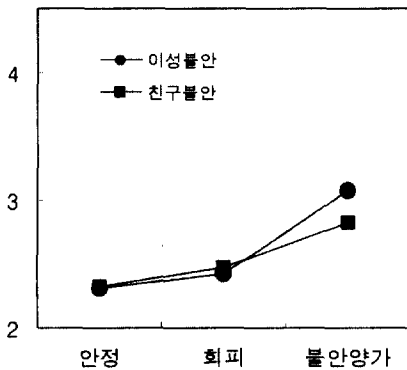


그림 5.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불안 및 친구불안 (여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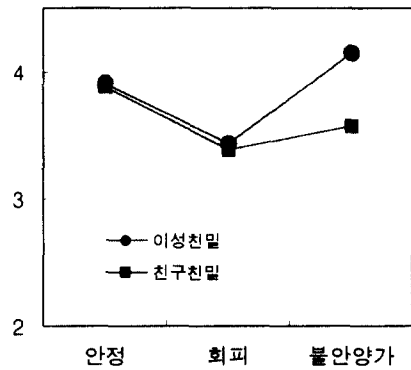


그림 6. 애착유형에 따른 이성친밀 및 친구친밀 (여자 대학생)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의 이성애착과 일치하며, 남자 대학생에게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친구애착을 이성애착과 같은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에는 여자 대학생의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차원의 정도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여자 대학생의 이성의존은 친구의존보다 높았는데( $t_{146} = 5.746, p < .001$ ), 이러한 결과는 모든 애착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 4). 즉, 여자 대학생은 모든 애착 유형에서 동성의 여자친구보다는

남자친구에게 더 쉽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 차원에서 안정형과 회피형은 이성친밀과 친구친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불안양가형의 경우는 이성친밀이 친구친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t_{11} = 2.609, p < .05$ )(그림 6),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성취지향적, 여자는 관계지향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관계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애착

및 친구애착의 의존, 불안, 친밀 차원에서 남녀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흔히 남자들이 맺는 관계의 전형적인 행동 특성으로 보이는 낮은 친밀감은 회피형 남학생에게서 가장 잘 나타났다. 회피형 남자 대학생의 친구 친밀이 낮은 것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철회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피형 남자 대학생의 이성친밀이 다른 애착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성친구와의 관계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Collins & Read, 1990).

그리고, 흔히 여자들이 맺는 관계에서 높은 불안과 높은 친밀이 전형적인 행동특성으로 간주되는 높은 불안과 높은 친밀인데, 이것은 불안양가형 여학생에게서 가장 잘 드러났다. 불안양가형 여자 대학생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성친밀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성불안(차이 평균 .25)과 함께 지나친 몰두로 나타나고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애착 유형에 따라서 이성애착과 친구애착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남자 대학생의 이성애착은 불안차원을 제외하고는 애착 유형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성애착 및 친구애착과 초기 부모와의 애착의 연속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들에 의해 작동모델이 변화됨을 시사한다.

##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애착이론에서 강조해 왔던 어머니와의 애착

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아가 아버지와의 애착,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성인애착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았고, 2단계는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성인애착에 대한 아버지와의 애착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부모애착을 통제 한 후, 성인애착에 대한 부모의 독립의 설명력을 알아보았다.

### 1) 남자 대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의 애착, 아버지와의 애착,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남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예언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표 6). 이성의존에 대한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친구의존에서는 모애착을 통제 한 후에도 부애착이 친구의존을 4% 설명했다( $F_{1,116}=4.218, p<.05$ ). 즉, 아버지와의 애착이 잘 되어 있을수록, 남자 대학생은 동성 친구에게 쉽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불안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7%( $F_{1,116}=9.31, p<.01$ ),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12%( $F_{1,114}=16.66, p<.001$ ),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5%( $F_{1,113}=6.93, p<.05$ )를 설명하였고, 친구불안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5%( $F_{1,116}=6.73, p<.05$ ),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15%( $F_{1,114}=21.06, p<.001$ ),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3%( $F_{1,113}=4.57, p<.05$ )를 설명하였다.

친구의존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의 설명력이 유의미했고(4%), 이러한 결과는 여러 명의 애착 대상이 존재하며 애착 대상에 위계가 있다고

표 6. 성인 애착에 대한 부모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위계적 회귀 분석(남자 대학생)

		이성애착				친구애착					
종속 변인	예언변인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sub>change</sub>	β*	종속 변인	예언변인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sub>change</sub>	β*
의존	1.모애착	.018		2.10	.087	의존	1.모애착	.023		2.78	.062
	2.부애착	.026	.008	.95	.100		2.부애착	.058	.035	4.22*	.207
불안	1.모애착	.074		9.31***	-.412	불안	1.모애착	.054		6.73*	-.425
	2.부애착	.075	.000	.04	.321		2.부애착	.056	.001	.117	.145
	3.FCI	.193	.118	16.66***	-.430		3.MEI	.202	.146	21.06***	-.409
	4.MEI	.239	.047	6.93*	-.282		4.FCI	.233	.031	4.57*	-.287
친밀	1.모애착	.011		1.30	-.040	친밀	1.모애착	.047		5.81*	.195
	2.부애착	.057	.046	5.64*	-.108		2.부애착	.055	.008	1.01	.261
	3.FCI	.149	.092	12.48**	.476		3.FEI	.097	.042	5.32*	.267

\* 마지막 모델에서 β 값

\*p<.05, \*\*p<.01, \*\*\*p<.001

MEI: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독립 FEI: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독립 FCI: 아버지로부터 갈등적 독립

본 Bowlby(198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애착은 이성이나 친구가 자신을 떠나거나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성불안과 친구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엄마로부터 편안함을 찾고, 엄마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나 다른 애착 대상으로부터 편안함이나 안정을 추구한다는 연구(Ainsworth, 1967; Rutter, 1981)와 연결시켜 볼 때, 성인애착 관계에서 불안은 아버지와 애착보다는 엄마와의 애착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불안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12%)의 설명력이, 친구불안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15%)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은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책감, 불

안, 불신, 책임감, 금지, 분노, 화와 같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승인, 친밀함, 융합, 그리고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같은 지나친 친밀함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남학생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수록 특히 여자 친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고,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친밀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수록 특히 동성의 친구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다.

이성친밀은 아버지와 애착이 5%(F<sub>1,115</sub>=5.64, p<.05),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9%(F<sub>1,114</sub>=12.48, p<.01)를 설명하였고, 친구친밀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5%(F<sub>1,116</sub>=5.81, p<.05),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4%(F<sub>1,114</sub>=5.32, p<.05)를 설명하였다. 아버지와 애착이 잘 되어

있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여자친구와 쉽게 친밀감을 느끼며, 어머니와 애착이 잘 되어 있고 아버지와의 지나친 친밀함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수록 동성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여겼다.

어머니와의 애착을 통제된 후에도 아버지와의 애착은 남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의 3%-5%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버지와의 애착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고 (.457), 유아-아버지의 애착이 유아-어머니의 애착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Steele et al., 1996)을 고려할 때, 성인 애착에 대한 아버지와의 애착의 설명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애착을 통제된 후에도, 4%-15%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 중 이성애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였고, 친구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지나친 친밀함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 애착은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와 부합하여(Steinberg, 1990), 서로의 도전을 지지하면서 애착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Weiss(1982)와 Buhrmester(1992) 등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애착의 기능 중의 하나인 정서적 편안함과 지지의 대상이 친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2) 여자 대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의 애착,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만이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표 7). 이성의존은 어머니와의 애착은 11% ( $F_{1,142} = 16.73, p < .001$ ), 친구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13%( $F_{1,142} = 21.03, p < .001$ )를 설명하였다. 어머니와 애착이 잘 되었을수록 남자친구나 동성 친구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인 애착에 대한 부모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위계적 회귀 분석(여자 대학생)

종속 변인	이성애착					친구애착					
	예언변인	R <sup>2</sup>	R <sup>2</sup> <sub>change</sub>	F <sub>change</sub>	β*	종속 변인	예언변인	R <sup>2</sup>	R <sup>2</sup> <sub>change</sub>	F <sub>change</sub>	β*
의존	1.모애착	.105		16.73***	.488	의존	1.모애착	.129		21.03***	.333
	2.부애착	.107	.002	.27	-.022		2.부애착	.131	.002	.370	.054
불안	1.모애착	.025		3.64 <sup>x</sup>	-.200	불안	1.모애착	.091		14.19***	-.283
	2.부애착	.031	.006	.87	.088		2.부애착	.093	.002	.281	-.158
							3.FEI	.122	.029	4.69*	-.205
친밀	1.모애착	.067		10.13**	.227	친밀	1.모애착	.089		13.81***	.334
	2.부애착	.070	.003	.504	.066		2.부애착	.093	.004	.694	-.076

\* 마지막 모델에서 β 값

<sup>x</sup>p < .06, \*\*p < .05, \*\*\*p < .01, \*\*\*\*p < .001

FEI: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남자 대학생과는 달리, 아버지와의 애착은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버지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므로(Steele et al., 1996), 어머니와의 애착을 통제된 후에는 설명력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 발달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자는 유아기에 자기-대상의 단일체를 구성했던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반면, 남자는 아동기에 주요 애착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상인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Hamilton, 1988).

이성불안은 어머니와 애착이 3%( $F_{1,142}=3.64, p<.06$ )를 설명하였고, 친구불안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9%( $F_{1,142}=14.19, p<.001$ ),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3%( $F_{1,140}=4.69, p<.05$ )를 설명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지나친 친밀감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친구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적었다. 이것은 남자 대학생이 부모로부터의 지나치게 인정받고 친밀하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울수록 불안이 낮은 것과 일치한다. 이성친밀과 친구친밀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각각 7%( $F_{1,142}=10.31, p<.01$ ), 9%( $F_{1,142}=13.81, p<.001$ )를 설명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이성친구나 동성인 친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쉽게 가까워지며, 버림받거나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적었다. 아버지의 애착이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유아의 애착유형을 빌어 제작한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애착 차원의 차이가 여자 대학생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여자 대학생의 유아-엄마 애착이 성인

애착 유형으로 연결되고, 나아가서 친구애착과 이성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및 제언

애착이론에서는 애착과 관련된 감정을 마치 기질과 같은 요인으로 보고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르는 연속성을 강조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초기 애착은 중기 청소년기에는 친구관계로 전환되고 후기 이성관계로 전환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는 친구 관계와 이성관계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와 이성관계에서의 애착을 비교하고,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성애착과 친구애착 모두 유아기에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내적 모델이 각기 다른 관계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성인애착에서 친구애착과 이성애착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이성애착에서 의존이나 친밀차원의 정도가 친구 애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회피형의 남자 대학생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보이지만,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애착 유형과 비슷한 정도의 편안함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대한 표상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도 적용되는데, 내담자는 상담자를 안전한 기반으로 사용하여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추구하기 위해 내적 작동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Pistole &



Watkins, 1995).

어머니와 애착이 잘 되어 있을수록 여학생의 성인애착도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아버지와의 애착과도 상관성이 있었고, 부모로부터의 독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애착 대상 뿐 아니라,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다양하며, 청소년기에 애착 대상의 전환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는 그 원인을 발달과정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주요 애착대상인 어머니와 동일시를 하고, 남자의 경우는 일차적인 애착 대상에서 떨어져서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내담자가 보이는 전이를 이해하는 틀에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Gelso & Hayes, 1998). 초기 엄마와의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고, 이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해 아버지와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탐색함으로써 내담자의 이성 혹은 친구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자기-보고에 근거한 것으로, 부모나 이성친구, 혹은 동성의 친구의 의한 보고나 실제 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관계나 친구관계 모두 양방향적인 관계로 상대방이나 환경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는 미혼인 대학생이었고, 부부에 비해 애착의 기능들이 모두 부모에게서 이성친구에게로 전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은 현재 애착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발달 상의 변화나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독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초기 애착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은진 (2000).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 (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 123-138.
- 정정숙 (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1982). In C. M. Parkes and K.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3-30). New York: Basic Books.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rtholomew, K. & Horowitz, K., L.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24.
- Belsky J., Gilstrap B., & Robin,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Birnbaum, G. E., Orr, I., Mikulincer, M., & Florian, V. (1997). When marriage breaks up - Does attachment style contribute to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4, 643-654.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New York: Routledge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s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uhrmester, D. (1992). The developmental courses of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F. Bou & J. Dunn (Ed.)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 Hillsdale, NJ: Erlbaum.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psychobiology*(pp. 783-915). New York: Wiley.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x, M., Owen, M. T. Hendersin, V. K., & Margand, N. A. (1992). Prediction of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Development Psychology*, 28, 474-483.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198-1212.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dult attachment and the suppression of unwan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80-1091.
- Freenev, A. J. & Noller, P. (1990) Attachment

-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Gelso, C. J., & Hayes, J. A. (1998).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Hamilton, G. N. (1988).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London: Jason Aronson.
- Hartup, W. W. (1992). Friend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In H. McGurk (Ed.),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 (pp. 175-205). Hillsdale, NJ: Erlbaum.
- Hatfield, E. (1983). What do women and men want from love and sex? In E. R. Allgeier & N. B. McCormick (Eds.) *Changing boundaries: Gender roles and sexual behavior* (pp. 106-134). Palo Alto, CA: May-field.
- Hazan, C., & Shaver, P. R. (1987). Minding the close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224-240.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Vol. 5, pp. 151-178). London: Jessica Kingsley.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 170-178.
- Isabella, R.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interactional synchrony during the infant's first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2-21.
-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Jossey-Bass.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9.
- Latty-Mann, H., & Davis, K. E. (1966). Attachment theory and partner choice: Preference and act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3, 5-23.
- Lopez, G. F. & Brennan, A. K.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and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ayselless, O., Danieli, R., & Sharabany, R. (1996). Adults' attachment patterns: Coping with separ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67-690.

- O'Brien, M. K., Friedman, M. S., Tipton, C. L., & Linn, G. S.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01-315.
- Pistole, M. C., & Watkins, C. E. (1995). Attachment theory, counseling process, and supervision. *Counseling Psychologist, 23*(3), 586-595.
- Rutter, M. (1981).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concepts: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549-571.
- Simpson, A. J.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teele, H., Steele, M., & Fonagy, P. (1996). Maternal interactions and self-reports related to attachment classification at 4.5 year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ce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L.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ennov, D. (1979). *Love and limerence: The experience of being in love*. New York: Stein & Day
- Vaughn, B. E., & Bost, K. K. (1999). Attachment and temperament Redundant, independent, or interacting influences in interpersonal adapt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98-225). New York: Guildford Press.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Parkers, C. M., and Stevenson-Hinde, J.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Basic Books, New York.
- Young, A. M. & Acitelli, L. K. (1998).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status if the perceiver in the perceptions of romantic partne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161-173.
- Youniss, J., & Haynie, D. L. (1992). Friendship in adolescenc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3*, 59-66.

## Parental Attachmen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Young-ju Cho

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Hae Rim Choi

General Educatio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a)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of adult attachments in romantic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and (b) the impact of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on romantic attachment and friend attachment.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in late adolescence.

For both men and women, the patterns of friend attachment in dependence, anxiety, and closeness dimensions were similar to those of romantic attachment. However, the scores of dependence and closeness dimensions of romantic attachment were higher than those of friend attachment. Compared with other styles, men who were avoidant styles showed lower scores in the closeness dimension of friend attachment. However, their closeness score of romantic attachment was not lower than other groups.

Parental attachment and separation from parents predicted adult attachment. For men, maternal attachment was correlated only with the anxiety dimension of adult attachment. The romantic attachment and the friend attachment were correlated with paternal attachment when maternal attachment was controlled. In addition, the emotional and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father and the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mother strongly predicted the adult attachment of men when parental attachment was controlled. For women, maternal attachment was correlated with the adult attachment, whereas the paternal attachment was not the predictor. Among the independence subscales, only the emotional separation influenced on the anxiety dimension of friend attachment of women.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psychological separation, adult attachment*